

해외전력정보

■ 짐바브웨, 주요 화력 및 수력 발전소 건설 추진동향

짐바브웨 전력공사인 ZPC는 Bulawayo, Harare 및 Munyati 화력발전소 개보수에 약 3억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3기 화력발전소 개보수가 완료되면 280MW의 전력생산과 더불어 운영기간도 약 20년 정도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 Wapcos사가 이들 발전소 개보수 F/S를 완료했으며 인도 정부가 Bulawayo발전소 개보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arare발전소 개보수 프로젝트는 조만간 재원조달 및 EPC 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Munyati발전소는 2010년도에 짐바브웨 철강회사를 인수한 인도 Essar Africa Holdings사에게 양허권을 인도할 계획이다.

한편, 짐바브웨 에너지 규제청(ZERA)도 600MW규모의 Hwange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민간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민간독립 발전사업자 면허를 13개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짐바브웨 전력수요는 2,200MW인데 반해 전력 생산량은 700~1,200MW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동부지역에 7기의 수력발전소 건설도 추진중이며 지방 전력청도 인도 Wapcos사와 공동으로 Gairezi(30MW), Duru(6MW) 등의 지역 5기 수력발전소 상세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 향후 소수력 발전소의 발주도 예상된다.

〈출처 : EngineeringNews, 2013/2/8〉

■ 튀니지, 200MW급 비르 메세르구아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동향

200MW급 비르 메세르구아(Bir Mechergua) 발전소 가동이 오는 6월로 예상된다.

동 공사는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참여하였으며, 튀니지의 부족한 전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emergency plan”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튀니지는 전력 수요가 연간 8% 증가하고 있어 관련 설비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일환으로 튀니지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1년 발발한 “아랍의 봄”의 민주화 시위로 인한 정세 불안으로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튀니지는 오는 2014년까지 발전소 건설을 통해 5,000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출처 : African Energy(2013.1.31)〉




■ CFE, Las Cruces 수력 발전소 건설 추진 동향

멕시코 연방 전력청(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 CFE)이 멕시코 남서부 Nayarit 주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대로 애로를 겪고 있는 Las Cruces 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480 MW 규모의 발전 설비를 갖추도록 계획된 동 수력 발전소는 인근 해안의 맹그로브 습지(Mangrove Swamp)에 필수적인 수자원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San Pedro Mezquital강에 건설되어 질 예정인데,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들은 이번 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멕시코 태평양 연안 지역에 있어 중요한 습지 보호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CFE는 동 수력 발전소 건설로 지금까지 우기만 되면 홍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 Tuxpan 지역과 Ruiz 지역의 홍수 예방 효과와 인근 지역의 원활한 전력 공급, 그리고 상수원 확보가 가져오는 경제적 의미와 기대가 더 크다고 보고 동 사업의 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FE는 현재 동 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동 수력 발전소가 위치하게 될 지역의 지질학적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이 마무리 되면,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을 최종 검토하여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 ADPNews (2013. 2. 12)〉

